

## 출입기자단 오찬

- 마무리 발언 -

### □ 마무리 발언

####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사의식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도덕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직성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말하자면 재산형성과정에서 부도덕하지 않다거나 또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무슨 추문이 없다거나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도덕성 문제가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로 논쟁이 되던 시절에 나는 수필처럼 썼던 글에서 정치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역사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대통령이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역사를 어떻게 보고 실제로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나 도덕적 품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책에 관한 역량은 별로 말하지 않았습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몰랐고, 역사의식 다음에는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겠

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 보니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또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품성으로 표현되는 인격적 자격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크게 보아서 역사의식과 정책추진능력과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품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획을 긋는 사건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87년 6월 항쟁이 지금까지 실제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후 모든 흐름은 대체로 그 연장선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그 연장선 위에 존재하고 그것이 큰 고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큰 사건들은 90년 3당 합당, 그 다음이 국민의 정부의 탄생일 것입니다. 참여 정부야 뭐 그 정부 연장선상에서 태어났으니 정치 그 자체로서는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 **당선 자체가 역사적 의미이며 지켜 나가야 할 방향이었던 참여정부**

하지만 역사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대통령의 관점에서의 참여정부의 평가는 무엇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나 강변이 되고 억지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저의 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한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고, 우리 사회적 운동과는 다른 소위 인터넷 바람이라는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적 파워의 출발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 파워를 통해서 특수한 선거조직, 선거과정을 거쳐서 당선된 것 자체로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야당이라는 정치세력, 우리 한국사회 일부 언론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기성의 정치 사회 문화 속에서 문화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심한 마찰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찰은 200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

타났던 대중적 흐름과 기존의 우리 사회의 질서 사이에 있어서의 마찰과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초를 87년 6월에서 등장했던 우리 대중적 동력과 2002년 저의 선거 때 나타났던 국민적인 참여의 바람을 시대적 의미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대통령이 된 역사적 의미이고 지켜 나가야 될 저의 역사적인 방향입니다.

### 규범 위에 있던 권력을 규범 아래로 자리하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권력을 규범의 틀 속에 돌이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규범 위에 있던 권력을 규범 아래로 자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지위가 향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그리고 언론권력이나 지식사회의 권력 등이 연대를 형성했을 때 보통 국민들의 위치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유착이나 결탁이라고 하는 연대의 고리를 해체하고 그 권력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서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계와 정치권력 사이에 존재하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해체되고, 여러분 듣기가 좀 불편하겠지만 정치권력과 언론사이의 수직적인 유착관계나 수평적인 공생관계 등의 과거의 관행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권력기관 상호간의 연대, 정치권력과 권력조직 사이의 규범을 벗어난 연대, 그리고 몇몇 힘쓰는 권력기관 상호간의 특수한 연결고리들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단어 사용이 어색하지만 일종의 결탁관계나 야합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관계들이 해체되고 우리가 표방한 질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사회, 명분과 내실이 분리되는 이중적 사회가 아닌 명분과 내실이 함께 가는 사회, 이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방향이

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국민들의 역동적인 정치참여와 사회참여가 있을 때 민주주의 수준이 하나 더 높아져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권력의 결탁과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법질서에 의해서 견제되는 사회가 일차적으로 민주주의의 조건을 갖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또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합리화되고 투명화 되었다는 수준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권력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분배돼서 왕이 누리던 것을 일반국민들이 누리게 되는 사회, 그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위 권력이나 특권이 일반국민들에게 퍼져나가는 과정, 그것이 역사의 발전과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참여정부 출범의 의미나 실질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상당 수준 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긴 시간 얘기를 하면 말이 되지만, 딱 한 마디로 표현할 길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오래 경험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지배나 독재 권력의 지배 하에서의 부당한 경험 등을 통해 그것이 현실로 존재할 때만 이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이미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되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내놓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와대 춘추관에 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차분하게 동의를 구하는 뜻으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 타협이나 상생의 문화는 아직 이루지 못한 과제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 제가 성공하지 못한 것이 대화와 토론의 문화, 양보와 타협의 문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리화, 투명화 한다는 점이나 권력을 규범이라는 틀 속에서 규제해 나가는 수준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회,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수준이 높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둘러싼 합의수준이 높으면 그 사회의 통합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악재가 사라진 사회, 은밀한 유착이 사라진 사회 또는 투명하게 된 사회에서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민주 사회발전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한 것이 노사정 대타협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이나 지역적인 동서화합, 대화와 타협의 문화 그리고 여야 간의 상생정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골똘히 하다 보니 성급하게 불거져 나왔던 대연정도 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속도위반이 된 거 같아서 한발 물러서 있지만 이 주제는 아직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이것마저도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풀어나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되 이것을 내 임기 안에 참여정부의 성과로 욕심을 부리기엔 좀 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유착의 고리를 끊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갈등이나 긴장이 해소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회 운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노력은 하겠지만 타협이나 상생의 문화는 좀 더 장기적인 목표로 뒤로 미루어가면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계획이 지역구도까지 포함해서 분열적 요소들의 극복할 수 있는 전체 상생의 정치로 묶이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구도는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장애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요소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다시 편 가르기로 나누기 쉽게 되는 우리 사회의 취약요소로서 항상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보자면 지금 정리한 대로이지만, 정책의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걸어진 과정을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 온 과정, 조금 흐트러져 있는 경제의 기반을 정리하고 안정시켜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전체적인 안정적 운영, 경기관리라고 하는 거시경제 관리, 산업정책 그리고 경제시스템에 관한 측면에 있어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안정되었다고 보지만 이런 것은 정책의 측면에서 어느 정권이나 반드시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걸 수 있는 역사적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에 대한 고민의 결과**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꼭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양극화문제였습니다. 2005년 초두에 제가 선진한국 동반성장을 내걸었습니다. 동반성장이란 양극화문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는 뜻으로 잡은 아젠다입니다. 2005년을 지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에 있어서의 내부적 요소, 내부적 환경, 내부적인 역량을 축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극화 외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국제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우리 경제주체들이 어떤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조성해야 우리 경제가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역점 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중국을 따돌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기술발전입니다. 기술혁신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교육과 인재 양성 등의 항상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 잡아가는 과정을 보면 아무리 도망을 가도 따라간 것은 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거의 따라잡은 분야는 중국도 우리를 시간문제일 뿐이지 결국 따라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한 분야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금융을 비롯한 주로 고급의 지식서비스 분야입니다. 특히 기업과 관련한 지식서비스 분야, 예를 들면 금융허브전략이나 물류허브전략, 그 다음에 고급서비스 신성장동력화 같은 부분은 우리 한국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분야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배급해주면 기업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시장 환경을 보호할 것이냐 열어줄 것이냐 하는 결정적인 큰 틀에서 보아야 합니다. 보호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어서 경쟁에 노출시켜서 성장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소위 선진국형 서비스 분야에서 보호정책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냐 개방정책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냐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 개방된 환경 속에서 경쟁을 통해 성장시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처음 이 문제를 시작할 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FTA전략을 여러 나라 중의 하나로 미국을 넣어놓고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던 가운데 미국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먼저 하자고 해서 우리가 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관심을 끌어서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로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위를 말씀 드리는 것은, 한미 FTA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밤낮 중국이 따라온다는 타령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에서 결국 우리도 선진국형 서비스업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참여정부의 큰 사건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 부분은 참여정부 안에서 다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든 사회의 일반적 의식수준이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 **국가의 미래를 향한 방향설정**

국가의 미래를 향한 공론화 과정이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수준까지만 가도 좋고, 더 나아가 미래를 중요한 경제적 수치로서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우리 국민들에게 10년 뒤에 제공돼야 되는 복지의 수준이 어떻다는 것, 그 다음 25년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할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 그 외에 국가적 서비스의 수준이나 국가의 안전수준까지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바다 밑에 쌓여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끊임없이 닥쳐오는 질병의 위험을 좀 더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국가적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계획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밟아온 이 산처럼 서울 6백년 고도의 성벽을 답사하는 우리 국민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얼마만큼 더 예술적으로 가꿔져야 되는지에 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어떤 문화적 환경까지 전부는 안 되더라도 큰 틀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이 누려야 될 문화적 수준과 복지의 수준을 제시하고 가보자는 것입니다.

2005년에 적용을 시작한 탐다운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기년도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정부안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5년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5년을 내다보면서 그 앞을 놓고 복지재정의 변화, 국방재정의 변화 각 분야별 재정의 변화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볼 것은 201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0년이나 2030년까지 보는 지도로 만들어 내자라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내다보는 그림을 우리나라의 재정지도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관리를 강화해 보자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마치 손잡이 없는 폭탄과 비슷하게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무 곳이나 들다가 잘못해서 뇌관을 건드리면 작은 사건들이 하나씩 터지듯이 진행됩니다. 얼마 전에도 조세감면 축소라는 것이 잘못 터져서 소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손잡이가 없는 위험한 폭탄처럼 되어서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지만,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2030년을 전체적으로 내

다보는 국가적 미래를 내 놓고 양극화 문제에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 원만 무사한 지도자보다 할 일은 하는 개성 있는 일꾼 필요하다

한미 FTA문제와 양극화 문제는 두 가지 다 아주 복잡한 문제여서, 2006년 연두에 새로운 의제를 던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고심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끄럽더라도 문제는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뒤로 미룰 만큼 여유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도 시끄러웠지만 남은 2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원만하고 무사한 지도자보다는 할 것은 하는 개성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각료들 인사를 하면서 그 인사기준을 저에게도 자주 적용시켜 봅니다. 일을 시키기에는 우선 빛깔이 좋아서 평판이 잘나오고 두 번째로 신중하고 원만하고 사려 깊어서 사고를 안 낼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보면 조용했던 사람들은 억측도 없지만 해 놓은 일도 별로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용하고 사고 없고 원만하고 빛깔 좋은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모난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한 사람은 여러 가지로 건드리다 보면 여기저기서 지뢰도 터지고 낙마도 하면서 사고를 내지만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각료를 뽑는 기준은 무사하게 사고 안낼 사람보다는 좀 시끄럽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 환경에 비추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나 있는 길로 화물트럭을 몰고 열심히 짐을 나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 멀고 불편해서 더 짧은 지름길을 찾아내고 그 지름길을 갈고 닦아서 화물을 좀

더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기준은 그렇다는 것이고, 대통령 하면서 저 자신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은 2년도 바쁘고 시비도 많고 시끄럽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박수)

역시 정치는 꿈보다 해몽입니다. 여러분이 잘 평가해줘야 무엇이든 되는 것이지, 시작부터 싹 내야 되는 것에 재를 뿌려버리면 시작도 못하고 묻혀버려서 평가까지 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나라도 더 많은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